

慶州李氏世譜序（一七四八年）

慶州之李寔東方舊族也漢宣帝時始祖以楊山村長佐羅祖開國而儒理王賜姓李氏古者軒轅氏之王天下也有子二十五人其得姓者十四則是有土有官得以爲姓也開國功臣之賜姓豈以是與周禮樂官司商定音律制姓名鄭公孫揮辨於大夫之族姓班位貴賤姓氏分別其來亦久矣漢晉以後紀譜志族盛於歷代而歐陽公取法於史氏之年表蘇老泉取法於禮家之宗統黃山谷譜七世以上疑不能明者略而不著蓋慎之也我東三韓之世文獻無徵新羅百濟高句麗派分鼎峙爲干戈疆域而史牒不全況於氏族譜系乎李氏始祖以下爲羅世臣而譜錄無傳至羅季蘇判公紀其世次按羅史世家大族號稱眞骨大骨而蘇判秩貴惟眞骨得授是職則可知其世爲貴族也蘇判之孫事麗太祖仍繼世簪纓僕射公有三子皆以文章大顯益齋眉州詩書吾大人三昆季雖不敢自比於蘇家父子亦可以名動一世非誇也

三世八卿四文衡五魁元古亦未有趙簡詩具慶提衡罕見聞閔漬詩
花萼三家五榜魁者是也逮于 我朝名公碩輔節義文章考諸名臣
錄文衡譜鼎席盟府玉署藝苑諸錄彬彬相望支派蕃衍而無一染涉
於凶險污辱此莫非祖先懿範休澤之所及而凡爲子孫者其可不思
勉飾繼述之道乎舊譜之刊甲子重回諸派之孫已易三世皆當追錄
故又此續成審稽遺文旁據諸譜而正其訛舛補其闕略叅用年表宗
統之遺法舊譜之未備者旁註添錄而疑者闕之亦致慎之意也程子
曰管攝天下人心收宗族厚風俗使人不忘本須是明譜系收世族立
宗子法今我同宗之人本出於一人之身而轉爲面目不知聲聞不及
之人其不至於相伐剪同禽獸者幾希顧念其本寧不慄然宗法譬猶
木之正幹分而有枝又有旁枝達而爲幹所謂天子建國諸侯奪宗而
亦各有大宗小宗親疎近遠之分同五世爲近宗同十世爲遠宗溯以
上之雖百世千世亦同宗也近者親而遠者疎亦天理之節文而同宗
則同本不職面不相聞而不同於路人者以譜系之明也人既尊祖重

本而推其孝悌之心則朝廷之勢自尊今此世譜之修不但收族敦宗而尚亦有助於 聖朝厚俗之政教云

裔孫 嘉義大夫行 承政院都承旨兼 經筵叅贊官

春秋館修撰官 藝文館直提學 尚瑞院正 重協 謹序

경주 이씨세보 서문

경주 이씨는 동방의 구족이다. 한나라 선제때에 시조께서 양산 촌장으로서 신라 태조를 도와 나라를 여셨고 유리왕이 이씨로 사성하였다. 옛적 현원씨가 천하에 왕할때에 아들 二十五인이 있었는데 성을 얻은 자가 十四인인즉 이는 땅이 있고 벼슬을 함으로 인하여 성을 얻음이니 개국공신의 사성이 일찍이 러하였다. 주나라때 예악을 맡은 관리가 음률을 잘 헤아려 성명의 제도를 지었으며 정 공손이 대부의 족성을 판별하여 귀천을 차별하였으니 성씨의 분별함도 그 유래 또한 오래이다. 진나라 한나라이후로 족보를 기록함이 역대보다 성행하였는데 구양공은 사씨의 연표에서 방법을 취하고 소로천은 예가의 종통에서 방법을 취하고 황산곡은 七세이상의 의혹나는 바를 생략하여 족보를 기

록하였으니 이는 신증을 기함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삼한 때에는 문헌의 정거
가 없고 신라 백제 고구려 때에는 나라가 삼분되어 전쟁터로 화하였으므로 사
첩조차 온전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씨족의 보제는 말할것도 없었다, 이씨가
시조이하로 신라의 세신이었으되 보첩이 전하지 못하다가 신라말엽의 소판공
부터 그 세차가 기록되었다, 신라의 역사에 세가대족을 진골이니 대골이니 호
칭한바 소판의 직은 오직 진골이어야 임명되었은즉 이씨가 대대로 귀족이었음
을 알 수 있다, 소판공의 후손이 고려 태조를 도와 다시 관록을 제승하였고 북
야공은 아들이 삼형제이었는데 모두 이름난 문장으로 이를 익재공이 미주시서
에 우리부친 삼형제는 비록 소 동파의 삼부자와 자비하지는 않지만 그 명성
은 능히 일세를 움직였노라고 썼음이 과장함이 아니고 삼대간에 경이 八 문
형이 四, 과원이 五임은 일찌기 없었던 것으로 조 간의 시에 「양친생존 대제
학은 들어보기 드물어라」와 민 지의 시에 「꽃다워라 삼형제집 다섯번의 장원
급제」라 함이 이것을 말함이다, 아조에 이르러서도 명공 석보와 절의 문장이
명신록 문형보 정석맹부 옥서예원 등에 끊임없이 연재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자
손이 변연하되 한 사람도 국가 민족에 치욕을 끼친 자가 없으니 이는 모두
선조의 모범과 덕택이 미친바일 것이다, 그 자손된 자는 마땅히 면려 제승할
도리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구보의 간행이 갑자가 거듭 돌아오고 제파의 자손
이 이미 삼대를 바뀌었은즉 다 마땅히 추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속간할새
유문을 참고하고 각파의 보첩을 증거하여 틀린 점을 고치고 빠진 점을 보충

하며 사씨의 연표와 예가의 종통의 유범을 인용하여 구보의 미비한 것은 주
 록하고 의혹난 것은 빼노니 또한 신증을 기함이다, 정자의 말쑤에 천하의 인
 심을 포섭하고 종족을 거두고 풍속을 두텁게 하여 사람마다 근본을 잊지 않
 게 하려면 오직 보계를 밝혀 세족을 모으고 종통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하
 였다, 이제 우리 동종이 본시 한 사람의 몸에서 나왔거늘 차츰 멀어져서 먼
 목과 성명을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가 되어 마치 금수와 같이 상잔하게 되지
 않을 자가 없으리니 근본을 생각할 때 참으로 두렵지 아니한가, 종법은 비유컨
 대 나무의 원밑둥이 나뉘어져 가지가 뻗고 가지가 무성하여 줄기를 이름과 같
 이 이른바 천자가 전국함에 제후가 종통을 빼앗음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인
 것이다, 또한 종족간에는 대종 소종과 친소 원근의 구별이 있어 동五세를 근종 동十세를 원
 종이라 부르고는 있으나 소급하여 본다면 비록 百세 千세라도 동종은 역시 동
 종이며 가까운 자는 친하고 먼 자는 서먹함은 또한 천리의 절문이지만 동종
 이면 동본인 것이다, 면목과 성명을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길가는 행인
 처럼 지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계를 밝힘으로써 만이다, 사람마다 조선
 을 존중하고 효제를 극진히 한다면 조정의 정사도 저절로 밝아질 것이니 이
 세보의 간행이 어찌 비단 우리 일족의 친목에만 뜻이 있으리요, 오히려 성조
 의 풍속을 아름답게 하는 정교에도 또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손 가선대부행 승정원 도승지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 수찬
 관 예문관 직제학 상서원정 중협 삼가 쓰다

白沙先生同宗楔序（一六八四年）

當堯之時治獄之吏謂之理官有能舉職者以官授姓因聲相近而遂爲李氏周末守藏史老聃托胎七十年指李而生故亦姓李逖矣二說杳難悉究自是以降根培條暢柯葉遠布至我東方寔維我祖所居成聚衆推爲長世謂之沙梁大人以漢地節元年糾率六部翊戴羅祖肇基王業上下千有七百年間鉅人張德譜不絕世三韓壁記孰與高下不朽有三世祿不稱焉則世家編戶者若是乎無輕重哉然孟子曰所謂故國者有世臣之謂也若保姓不墜爲國巨室與同休戚則誇祖尊族之論又豈可少之哉惟是親屬既竭支分派別服窮於上戚單於下以至於喜不慶憂不吊路上相逢一揖馬鞭者亦幾希矣嘗聞禮曰同姓從宗合族屬親又曰尊祖故敬宗敬宗故收族君子因睦而合族於是族食之禮興而遂以是爲重吾宗李光陽宗彥甫興言及此恍然傷之倡議子姓倣古合族之禮以修楔事遂徵序於余余曰靈椿數葉蔭子通而其本一根之萌也大姓毓慶遍子天下而其初一人之身也一

而爲三三而爲五五而爲九下殺旁殺而親乃畢矣持枿於句萌沾潤
蓓蕾脉連於根者遠揚至於南北生之膝下喘息呼吸氣通於親者子
孫至於途人亦悲乎抑余有一說爲諸君勗之晉謝唐崔雖稱華胄一
世之後後孫不免廝役無德故也惟銜龍豕韋唐杜及范歷三代而益
大者世修其德故也吾宗不振久矣詩曰無念爾祖聿修厥德今念祖
修德其惟望于諸君

吾宗舊無譜宗人侍郎重協氏積歲月之功始有成書既印行以先
祖白沙先生同宗稷序弁其卷蓋爲敬宗合族之義稷與譜無異而
念祖修德之訓今與古均也小子更何敢述焉仍念先祖之以謝崔
范氏爲喻者其旨深矣雖然范氏之德視謝崔則固遠矣若穆叔之
論則必以立德立事爲不朽而范氏之保姓守族爲祿之大者其論
亦篤矣且以吾先言之沙梁大人之德至於千有餘年歷三代而代
有公卿是則豕韋唐杜之祿莫或尚之若惟白沙先生身服乎禮義
而道光彝倫此正古人所稱立德立事爲不朽之烈者也凡爲先祖

之雲仍旁支者思所自修既無替沙梁世祿之遺而亦必紹白沙不
朽之烈則可謂無忝厥祖矣余又以爲同宗告焉若其收輯之勤凡
例之詳侍郎自有序云

白沙先生五世孫 宗城 敬識

백사선생 동종제 서

제오때에 감옥을 다스리는 관리를 이관이라 하였고 그 직무를 잘 수행하
는 자에게는 그 관직에 따른 성을 주었는데 이관의 「이」와 자음이 같은 이씨
가 주어진 것이라고도 하고 주나라 말기의 수장사 노담이 잉태한지 七十년만에
출생할때 오얏나무를 가르켰기 때문에 성을 「이」라고 하였다는 말은 오래 되
었다 이 두 설은 워낙 아득한 옛 전설들이라 잘 알 수는 없다 그 후 자손
이 번창하여 우리나라에 까지도 이르렀다하는데 우리조상 가운데 사시는 곳에
부족들이 모여들어 장으로 추대하고 이 어른을 사랑대인이라 칭하였다 한나라
지절 원년에 六부의 부족을 규합통솔하고 신라 태조를 도와 왕업을 이루었다
이로부터 千七百年간 위대한 인물과 공훈있는 명신들이 보첩에 끊이지 않았으
니 삼한벽기에 뒤 능히 적수가 되리오만 三볼후 가운데 세록이 들지 않았으니
세가를 편집하는 자가 어떻게 도 정술하였는가 그러나 맹자에 이르되 고국이라

함은 세신이 있음을 말함이라고 하였으니 만일 세족된 명분을 길이 보전함이
국가와 휴척을 같이 하는 일일진대 파조 존족의 논위가 어찌 사소한 일이겠는
가, 이제 세대가 멀어지고 파지가 갈리어서 위로 복이 다하고 아래로 사랑이
끊어지어 희우에 경조사가 없어졌고 길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인사나마 주고
받는 자가 없으리라, 예기에 쓰였으되 동성 동종은 족속에 합한다 하였고 또
조상을 받들음으로 종족을 공경하고 종족을 공경함으로서 종족을 거둔다 하였다,
군자가 돈목을 도모하여 족속을 모두고저 족식의 예를 흥행하였으며 이로써 중
한 일을 삼았다, 우리 광양현감 이 종언이 여기에 마음이 상하여 제종에 제의
하여 옛 합족의 예들 모방하여 종계를 설립하고 드디어 나에게 서문을 청하였
다, 생각컨대 영춘의 뻘은 앞이 온 거리를 덮였으되 그 밑둥은 한 뿌리의 싹
이요 대성의 기른 씨가 온 천하에 퍼졌으되 그 처음은 한 사람의 몸이라 一
이 되고 三이 되고 五가 되어서 직계 방계가 흐를수록 친은 이에 다한다, 一
한 뿌리로 자라난 지엽이 남북으로 멀어지고 한 기운으로 태어난 자손이 남쳐
럼 되어가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거듭 또 한마디 제군에게 격려하노니 진나라
의 사씨와 당나라의 최씨는 비록 당시에 빛나는 족속이었으나 一세를 지낸 후
엔 그 자손들이 천역을 면치 못하였음은 덕을 쌓지 못한 때문이요 함, 용,
시, 위, 당, 두, 및 범씨등은 삼대이후까지 더욱 번창하였음은 대대로 덕을 쌓았
기 때문이다, 우리씨족이 부진한지 오래이다, 시전에 이르기를 네 선조를 생각하
지 않느냐 오직 덕을 닦을지어다, 하였으니 이제 선조를 생각하고 덕 닦기를 오

직 제군에게 바라노라,

우리 종족이 전대에 수보치 못하였더니 종인 시랑 중협씨가 오랜 세월 공을 쌓아 비로소 보첩이 이루어졌다, 전에 간행된 갑자보에 우리선조 백사선생의 동종제서가 서문으로 되어 있으니 이는 정종과 합족의 의의가 제와 보가 다를 것이 없고 염조와 수덕의 교훈이 지금과 옛이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소자가 다시 감히 무슨 말을 보탬 것인가만 선조께서 사, 최, 범씨의 고사로써 비유하셨음을 생각하면 그 뜻이 깊다, 그러나 범씨의 수덕으로 사씨 최씨의 무덕만을 비교한다면 너무나 거리가 멀다, 목숙의 논리는 반드시 입덕과 입사로써 불후를 삼았는데 범씨의 보성 수종이 세덕이 된 큰 이유라고 하심은 그 가르침이 더욱 간독하다, 또 우리선조로 말한다면 사랑대인의 덕은 千여 년동안 신라 고려를 거쳐 우리나라에 이르기 까지 대대로 공경 대부가 있었으니 이는 시, 위나 당, 두의 세록이 낳을 것이 없고 오직 백사선생은 몸은 예의에 배고 도는 의률훈에 밝았으니 이것은 참으로 고인의 이른바 입덕 입사로써 불후가 되게 한 열렬하신 어른이다, 우리선조의 후예와 방손된 자는 스스로 답을 바를 생각하여 사랑대인이 끼친 세록의 덕에 흠이 없게 하고 또한 백사선생의 불후의 열을 잇는다면 거의 선조에게 누욕됨이 없으리니 내 또한 이로써 동종에게 권고한다, 보첩수집의 절차와 범례의 내용에 관해서는 시랑의 자서가 따로 또 있다,

백사선생 五世손 宗성 公경하여 쓰다.

慶州李氏世譜跋

昔我先祖白沙先生著慶州李氏同宗稊序以念祖修德之義以勗諸宗而伊時則未有族譜也東方世宗大族家各有譜近世此風甚盛而吾宗則肅廟甲子始成譜伊後英廟戊辰又刊譜余名亦入譜中而戊辰以後一甲且周己入譜幼者長且老而後生之未入譜者又不知爲幾千萬京外諸宗有重刊之議而以財力之難辦慎重趙趙相持累歲洛下諸宗與宗人敬文甫力主發通之舉蓋宗中既無雄藩巨邑可以廩餘損財者不得已爲歛財各名下之計所歛之錢爲累千緡設廳開印經年閱歲因掌財者之不善綜理財訕舉贏役將有中輟之慮故敬文甫慨然發文收拾始刊之本下往嶺南蓋宗人集老甫方爲慶山宰一榮甫爲靈山宰遂以集老爲都有司兩邑宰合力設局於慶山邑廨而印成之若非敬文之奔走京鄉鳩財董役則吾譜豈能登梓乎其誠誠可嘉也咸謂竣役之後不可無跋文茲叙重刊顛末是爲跋

白沙先生六世孫大匡輔國崇祿大夫原任議政

府左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鰲恩君致仕

奉 朝賀 敬一 跋

경주 이씨 세보 발

옛적 우리선조 백사선생이 경주 이씨 동종제서를 지을 적에 조상을 생각하여
 덕을 닦으라는 뜻으로써 제종을 격려하였는데 그 때에는 족보가 없었다, 동방
 의 세종 대국은 집집마다 족보가 있었는데 근세에 이런 풍조가 심히 성하여졌
 다 우리종족은 숙종 갑자에 처음 족보가 이루어졌고 그 후 영조 무진년에 또
 족보가 간행되었는데 나의 이름도 족보중에 들어 있었다, 무진이후에 한 갑자가
 또 돌아와 이미 족보에 들어간 어린 자가 커서 늙었고 후에 나서 족보에 들
 어가지 못한 자도 몇천만이 되는지 알 수 없다, 서울밖 여러 종인이 중간하자
 는 의론이 있었으나 재력의 엽출이 곤란하다고 신중하여 머뭇거리다가 몇년이
 흘렀는데 서울밖 여러종인이 종인 경문씨를 도와 힘써 통문을 발하게 되었다,
 대개 종중에 남은 재산을 희사할만 한 튼튼한 큰 울타리의 읍이 없어서 부득
 이 명하전을 거두게 하였더니 전천돈이 수천 꾸러미가 되었다, 보소를 설치하고
 인쇄를 시작한지 면년이 지났으나 재정을 말은 자가 관리를 잘못하고 말은 일
 을 감당하지 못하여 중지될 염려가 있었다, 그래서 경문이 개연히 통문을 발하
 고 간행되기 시작한 책을 거두어 가지고 영남에 내려가니 종인 집로가 바로
 경산의 재이고 일영은 영산의 재이라 드디어 집노를 도유사로 삼고 양읍의 재

가 합력하여 경산음 청사에 보소를 차리고 인쇄를 마쳤으니 만약 경문이 정함을 분주히 다니면서 출염을 독려하지 않았다면 우리 족보가 어찌 간행되었겠는가, 그 정성은 정말 가상하다, 모두들 보역을 마친 후에 발문이 없을 수 없다고 하기에 이에 중간의 전말을 적어 발문을 삼는다,

백사선생 六世손 대광보국 승록대부 원임 의정부 좌의정

점 영경연사감 춘추관사 오은군 치사 봉 조하 경일 발

慶州李氏新譜追記 (一八一四年)

東方巨族必稱李金崔安鄭朴則我姓之李固是六姓中一大族也系出東京之瓢巖矣時則新羅之國初矣歲歷幾千代傳四十而支分派裂世襲簪纓星羅碁布散在京鄉者不知幾千萬人而都是我鼻祖蘇判公之苗裔也以今日後孫之心論之派族相分世系寢遠雖有遠近之別而自先祖視之皆是子孫必無親疎之異矣爲其子孫者若以先祖之心爲心則遠者可近疎者可親如欲親近莫如敦宗如欲敦宗

先從世譜中同修派系是亦一道也何者惟我諸宗散在四方彼此間平生所昧者十過其九其人之爲同姓多有不知豈知其派之爲某派乎其派之爲某派既曰不知寧識斯人之爲同宗乎同宗之誼到此而蔑如雖欲親之近之不可得也若有世譜而考其來歷則其人之形狀雖不相識某人是某也之近族而自某派支分矣某也即某派之長派而與某人最近人矣大宗小宗來歷分明遠族近族昭穆可計而雖在千百代之後叔姪之第次兄弟排行秩秩有序歷々可知而殆若掌中之觀文矣斯豈非疎者親遠者近敦宗睦族之一大節目乎是故近來古家皆有派譜而敦厚之風由是而蔚興矣雖以吾宗言之始有敦宗楔目繼有甲子譜其後六十餘年復有戊辰之新譜而皆出於敦睦之厚誼也戊辰後追生子孫到今日遽然作蒼顏白髮無不育子抱孫而一門內祖子孫三世並存者比々有之則後生之繁衍比舊戊辰改譜時不啻倍蓰生齒如是滋殖年甲又丁戊辰則繼舊譜而復刊新譜不可已之事也歲在丁卯在鄉宗人問議於京中諸宗長而詢謀僉同設

廳始役訖八年未成之功竟有成於嶠南之鄉訖功之時其或有待而然歟成事之地抑有所定而然歟嗟我諸宗擎歸新譜勿束高閣奉在兀上盥手敬覽推本溯源則敦睦親愛之心自不覺油然而出矣不獨吾宗美風庶可有補於風化之萬一豈不休哉豈不猗哉譜事設施之始本移送嶺邑之委折己盡於鰲恩相公之跋文余何敢復贅於其間乎

裔孫通訓大夫行慶山縣令

集老

謹記

경주 이씨 신보 추기

동방의 큰 씨족은 반드시 이, 김, 최, 안, 정, 박을 일컬었는데 우리성인 이씨는 진실로 六성중의 한 큰 씨족이다. 계통은 동경의 포암에서 나왔는데 때는 신라국초이다. 몇천년 지나고 四十대를 지나 파가 갈리고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하였으며 별이 흠어지듯 바둑알이 깔리듯 경향에 흠어진자 몇천만인지 알 수 없으나 도시 우리시조 소판공의 후예이다. 오늘날 후손의 마음으로 논한다면 파가 갈리고 세대가 멀어져 비록 원근의 구별이 있으나 시조께서 보신다면 다 자손이니 반드시 친소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자손된 자는 선조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삼으면 먼 자도 가까와지고 서먹한 자도 친해질 것이니 친근케 할려면
 돈종하느니만 못하고 돈종할려면 먼저 세보중에서 파제를 잘 닦는 것이 또한
 하나의 도리일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씨족이 사방에 흩어져 피차간 평생
 모르는자 十분의 九는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동성인이라는 것도 모르는 자가
 많으니 어찌 파가 무슨 파인지 알겠는가? 파가 무슨 파인지도 모르니 어찌
 이 사람이 동종인지 알겠는가, 동종의 의의가 이에 이르러 끊어졌으니 비록 친
 근할려고 하나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세보가 있어 내력을 상고하면 그 사람
 의 얼굴은 몰라도 아무는 아무개와 근족이고 아무파에서 갈리었고 아무는 아무
 파의 장손파이고 아무와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대종 소종의 내력을 분명히
 원족 근족의 소목을 해아릴 수 있다면 비록 천백대후라도 숙질의 차례와 형제
 의 항렬이 질서정연하여 역력히 알 수 있으리니 마치 손금을 보는것 같을 것
 이다, 이것이 어찌 서먹한자 친하고 먼자 가까와지고 돈종 친목의 한 큰 대목
 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근래의 고기에는 다 파보가 있어 돈후한 풍속이 이로
 말미암아 융성해졌다, 우리종중으로 말한다면 처음 돈종계목이 있었고 이어 갑자
 보가 있었고 그 후 六十여년에 다시 무진신보가 있었으니 다 돈목하는 후의에
 서 나온 것이다, 무진후에 출생한 자손들이 지금은 어느덧 창안백발이 되고 자
 손을 기르지 않은이 없고 한 집안에 세대가 병존한 집안도 많이 있는바 후생
 의 번연을 무진개보때에 비하면 닷배 번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자도 다시 무
 진년이 되었으니 구보를 이어 다시 신보간행을 아니할 수 없는 일이다, 정묘

년에 재향종인들이 서울 여러 종장에게 문의한 결과 모두 찬동하여 보소를 두
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八년만에 일도 마치지 못하고 마침내 영남에서 성취하였
으니 준공하는 시기도 혹시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성사하는 곳도 뭐
정한 바가 있는 것인가, 아아 우리 제종은 신보를 받들고 돌아가 문고안에만
묶어두지 말고 책상위에 모시고 손씻고 경랍하여 본원을 찾으면 돈목친애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것이니 우리동종의 미풍일 뿐만 아니라 아마 나라의 풍속
미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니 이 어찌 아름답지 않으며 왕성한 일이 아니겠는가,
보사시설의 시작과 영남으로 옮긴 곡절은 오온상공의 발문에 잘 기록되어 있으
니 내가 감히 무슨 군더더기를 그 사이에 하겠는가,

후손 통훈대부행 경산 현령 집로 삼가 쓰다,

慶州李氏世譜 (晉州李氏先系)

遠代孫 一世

李居明 거명

蘇判新羅官制
蘇判惟眞骨受
之唐令狐澄新
羅記新羅貴族
謂之骨始祖以
下失系李牧隱
撰益齋誌只載
蘇判公以下
소판 신라
관제에 소판
은 오직 신
골이라야 그
직을 받는다
당영호장의
신라기에 신
라귀족을 골
이라고 하였
다 시조이하
는 계통을
임였고 이

二世

子金現 금현

兵部令新羅法
興王置兵部令
大阿榮角干爲
之得兼宰相羅
麗習俗父子襲
名如權幸子仁
幸龔直子直達
是也公之父子
以金字名恐是
此例或言公賜
姓羅朝而入麗
朝後複姓
병부령 신
라 법흥왕이
병부령을 설
치하였는데
대아찬 각간
이 이 직을
얻고 재상을
겸하였다 신

三世

子金書 금서

中原太守戶部
郎中始仕高麗
配金氏敬順王第
三女麗太祖外
孫號神鸞宮夫
人敬順納土入
朝高麗太祖妻
以長女樂浪公
主比之神鸞賜
號其宮麗初李
開亦以慶州之
李爲陝川戶長
仍貫江陽江陽
陝川屬縣也
중원태수 호
부낭중 처
음 고려에
벼슬하였다
배 김씨 정순
왕의 세녀

四世

子潤弘 윤홍

兵正高麗仍置
兵部令及兵正
秩視宰相
병정 고려
가 계속 병
부령과 병정
을 설치하였
는데 품질은
재상과 비긴
다

五世

子承訓 승훈

正朝侍郎高麗
官制內史侍郎
門下侍郎平章
事中書侍郎選
秩六品卿職七
品曰正朝
정조시랑
고려관제에
내사시랑 문
하시랑 평장
사 중서시랑
이 있는데
선질六품과
경직七품을
정조라고 한
다

子承謙 승겸

判禮部事
판례부사

六世

子周復 주복

子齊廷 제정

晉州李氏世譜

二
世

三
世

四世

五世

六世

子英實

子壽

子貴孫

子殷碩

영실

수

귀손

은석

字君寶號碧湖
李朝太祖盛時
官至吏曹判書
以直道事君坐
配于成川因居
深壑坊其立朝
事蹟居鄉顛末
載在國乘邑誌
公在世修己以
正接人以禮後
人愛慕之迄今
誦之曰公仁人
君子也所居其
址名其里曰君
子里改其坊曰
仁山原貫慶州
公之孝悌出天
其伯氏藝文館
大提學諱永梓
謫居晉州故常

司憲府監察字
號生卒年及配
某氏文獻無徵
有四子
사헌부 감찰
자 호 생졸
년과 배 아
무씨는 문헌
의 징거가
없고 네 아
들이 있다.

字號生卒年及
配某氏公獻無
徵
자 호 생졸
년과 배 아
무씨는 문헌
의 징거가
없다.

字號生卒年及
配某氏文獻無
徵
移居陽德
자 호 생졸
년과 배 아
무씨는 문헌
의 징거가
없다
양덕으로 옮
겨가시다、

의
동

子殷富

子仁實

인
스

通仕郎行崇靈

移居信川

五

配信川康氏

겨가시다

령전
참봉

10

于承富

于王碑

배
신천
강씨

字依珏號雪

將仕郎行御